

“선거전이 한창일 때 선거사무실에서 급히 찾아 달려가 보니. 법정 스님이 와 계셨어요. 스님을 뵈자마자 막 눈물이 쏟아지는데... 법대로 순리대로 하는 게 나름 힘들었던 모양이에요. 한참 있다 꺼낸 말이 '아니, 스님이 여길 왜 오셨어요?'였어요. 그 말씀을 두어 번 했어요”, 관봉 선생은 금세 눈시울이 물러지며 코끝이 붉어왔다. “아버지가 오신 것 같아서... 그때 스님이 '그래, 얼마나 힘들다'고 하셨어요. 스님이 다녀가셨다는 얘기를 아무한테도 알리지 않았어요. 그 때 사진이 몇 장 있어요. 선거 끝나고 국회의원 할 때 그 사진을 보면서 '바르게 해야지. 바르게 해야지' 하고 되새겼어요. 18대 때도 잠깐 오셨어요. 음식점에서 점심 대접하시는 어서 가시라고 그랬어요. 여길 왜 오셨냐고. 나 때문에 어른 스님이 정치판에 모습을 보여? 어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 아름다운 패배

요즘 눈길을 끈 드라마 '대물'을 보면서 선생 모습을 떠올렸다고 했다. “깜짝 놀랐어요. 내가 캠프에서 했던 대사가 그대로 나와서. 처음 정치를 할 때 우리 집사람이 통장을 갖다가 회계자에게 주면서 '이 돈이 전부예요. 더는 돈도 없고, 쓸 수도 없어요'라고 말했어요. 그 다음 국회의원 선거, 도지사 선거 때도 캠프에서는 공약을 잘 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 때마다 나는 '지키지 못할 공약은 못합니다. 지킬 공약만 합시다'라고 말했어요. 오늘 한 말이 잘못된 줄 알게 되면 그 다음 방송 시간에 반드시 고치고 나갔던 사람이 어떻게 거짓말을 해요? 이번 선거 때 돈 써야 한다고 돌레에서 소리 높일 때도 '비겁한 승리보다 아름다운 패배를 택하겠다. 절대 안 된다'고 했는데 그 말이 그대로 나오더라고요.”

드라마 속 주인공은 도지사가 됐지만, 현실 속 관봉 선생은 낙마했다.

“거짓말은 스스로를 속이는 일이지. 천심, 민심이 됩니까? 여러 사람 생각이 모인 건데, 천심이 올바른 선택을 하는 날이 오게 하려면 나 같은 희생자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예요. 요즘 어디 가서 축하나 인사할 때 그래요. '선거에 져서 죄송하지만 부끄럽게 생각했던 적이 없다. 나는 교과서에서 배운 대로, 국민과 시민단체 그리고 언론이 날마다 옳다고 떠든 대로 했을 뿐이다. 성공하지 못했을 뿐이지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내가 지나쳤던 부분이 있다면 고칠 수는 있지만 탈법을 해가면서 자제를 바꾸고 싶지는 않다'고 얘기했어요.”

그는 앞일을 단정할 수는 없지만 다시 선거전을 치루더라도 마찬가지로 거라고 잘라 말한다.

순수가 통하고 원칙이 통하는 세상을 한 번 만들어 보겠다고 시작한 정치. 세비 말고는 17, 18대 두 번 국회의원 선거를 치루면서 후원금을 받지 않았다. 18대 들어와서는 돈이 없어서 의정 보고를 할 수 없어 하는 수 없이 후원금을 받기로 했다. 하지만 이미 사람들한테 이계진은 돈을 받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어, 도지사 선거 때도 후원금이 적게 들어와 많은 빚을 진 관봉 선생. 집에 스님 사진을 걸어놓고 드나들 때마다 “스님, 부끄럽지 않게 살겠습니다”고 인사드린다.

30년도 훌쩍 넘은 아주 오래 전. 나그네가 몸담았던 패선계에서 관봉 선생에게 패선소 사회를 부탁하고 사례는 어떻게 해야 하나냐고 물었다. 돌아온 답은 “정해진 대로 주십시오”이다. “나는 출연료를 흥정해 본 적이 없어요. 그건 제 무덤을 파는 일이기도 하거나 자존심 상해요. 내 몸값을 내가 정한다



법정스님 대비시 때 '스님 볼 들어갑시다'라고 소리치며 영영 올던 그의 모습을 잊을 수 없다. 사진장이가 알았던 정치인이계진 대신 법정스님 제자 '이계진'을 발견했기 때문이었다. 오랜 시간 취재현장에서 그를 보았지만 '인간 이계진'을 발견하지 못한 나의 죄음이 부끄러웠다. 이 부끄러움은 나보다 훨씬 잘 살고 있는 그의 모습에 더 커졌다.

는 게. 돈을 두 곱 더 받는다고 삶이 두 곱으로 행복해지겠어요?”

- 정재(淨財), 청재(淸財)

맑고 향기롭게 처음 모습 스케치를 부탁했다. “스님이 처음 하신 얘기는 단순해요. '중이 밥값은 해야 하지 않겠어?' 이게 출발점이에요.” 맑고 향기롭게 활동은 누구라도 뜻을 같이 하는 이라면 종교를 따지지 않고, 요란스럽지 않게 제 스스로, 여기저기 손 벌리지 않고 제 주머니 털어 나누고, 키우려 들지 말고 자연히 늘어나는 대로 하자는 취지로 시작했다. “그 가운데 종교를 따지지 않는다는 말이 품시 마음에 들었어요. 그때 돌아가신 아동문학가 정재봉 선생도 계셨는데 처음엔 불자인줄 알았는데 천주교인이더군요. 스님이 하시고 또 김상사 돌레에서 하니까 아무래도 불교가 중심이 되는데, 문을 더 열어야 한다는 생각이예요.” 선생은 사업을 자꾸 늘려나가기보다는 하던 일 제대로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일을 벌리다보면 돈이 많이 들어가고

돈이 필요하면 여기저기 손을 벌리거나, 수의 사업에 손을 대게 되고 그러다보면 부작용이 생기게 되니까. 정재淨財, 청재淸財를 하자는 거지요.” 선생은 맑고 향기롭게 운동이 처음 생각대로 단출하고 담백하게 이어가기 바란다.

법정 스님이 입적에 들기 이틀 전, 선생은 남미 출장을 다녀오는 길에 스님을 찾아뵙고 인사드렸다. 여행길 눈에 속 들어 사온 한 뺨밖에 되지 않는 조그만 인형을 스님께 드렸더니 스님 낯빛이 연꽃잎 병글 듯이 환해지셨다.

돌아오는 길. 성덕대왕 신중에 적바림된 말씀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부처님 말씀을 글로 옮기면 불경이고, 부처님 모습을 만들면 불상이고, 부처님 목소리를 만들면 종소리니라.”

글=법정 스님 자취를 더듬는 변택주 einew@hanmail.net 사진=마음을 담는 사진장이 근승량



태허성숙(太虛星淑, 1898~1969)②

석길암의 한국불교 승려열전

서대문 감옥에서의 2년간의 옥고. 태허 스님이 조선 사람의 자유와 해방을 위해 나섰던 만세운동에 앞장섰던 결과였다. 독립운동을 위해 땅 돈을 몰래 들고 집을 나섰던 젊은이, 그의 지지가 승려의 길을 만났다고 해서 식었을 리 없고, 더구나 민족대표였던 손병희나 만해를 만났으니 '예정된 결과'였다고 밖에 할 수 없다. 그런 그의 눈에 식민지 조선 백성의 고통과 삶에 대한 연민이 1920년대 초반 조선사회에 세를 넓혀가던 사회주의를 만나게 된다. 그것이 그의 삶에 또 다른 전기가 된다.

“처음에는 그저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일에 참여한다는 마음에 가입했지만, 이 단체를 통해 사회주의 운동에 발을 들이게 됐다.”

스님의 회상이다. 그저 가난한 사람들이라 표현하고 있지만, 실은 그저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었다. 일제는 조선을 병합한 후 지속적으로 식민지 수탈정책

광동으로 가 광동코민에 참가하기도 했으며, 광동코민의 실패 이후 다시 상해로 가서 중국 공산당과 연합해 항일운동을 계속했다. 승려로서 사회주의자로서 독립운동의 일선에 서있던 스님은 1942년에는 대한민국임시정부 내무차장에 취임하고, 1943년 대한민국임시정부 국무위원으로 독립운동을 지속하다 해방을 맞았다.

태허 스님은 귀국 후 1946년, 임정이 미군정 자문기관인 민주위원회에 참가하는 것을 반대해 임정을 떠났다. 미군정의 정책이나 미군정을 이어서 들어선 대한민국 정부의 정책이나, 그에게 있어서는 해방된 조국의 모습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이다.

독립운동가는 어느새 좌익이라는 낙인을 찍혔다. 그는 독립운동가, 독립된 국가의 유공자가 아니라 좌익이라는 새로운 시대의 죄인이 돼 있었지만, 끝내 그 죄인이라는 해괴한 굴레를 벗지 못하고 글자 그대로의 단칸방에서 생애를



국립현충원에서는 매년 태허 스님의 추모제가 봉행된다.

연명이 사치였던 수탈시대 가난한 자 위해 승려 굴레 던지다

를 실시했고, 그 수탈정책에 제일 먼저 희생당한 사람들이 바로 농민이었다. 토지와 식량 수탈이 식민지 정책의 1순이었기 때문이다. 농민들은 제일 먼저 농사지를 땅을 빼앗겼고, 식량을 빼앗겼다. 수탈에도 불구하고 고향에 그냥 주저앉아서 버티는 자들에게도, 수탈을 감당하지 못해서 도시로 타지로 내몰리는 자들에게도, '연명(延命)'이라는 말에 사치에 불과한 시대였다.

1922년 성숙이 무산자(無產者)동맹회와 조선노동공제회에 가담한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행보이기도 했다.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나은 삶을 그들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인가. 정치 이념이니 하는 것은 그저 좀 더 나은 삶의 가능성을 조선의 백성에게 제공하기 위한 수단이었을 뿐이다.

일본 경찰은 그런 그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고, 스님은 감시를 피해 북경으로 건너갔다. 북경에서 태허 스님은 북경민국대학을 다니며 정치경제학을 연구하는 한편 <혁명>이란 잡지를 발행하는 혁명가로 변신했다. 1926년에는

마쳤다. 대한민국 정부는 그가 죽은 지 10여 년 후인 1982년 건국훈장 독립장을 수여했고, 스님의 유해는 2004년에야 국립묘지에 안장됐다.

그는 일제시대 대부분의 독립운동가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이념을 위해서 투쟁한 인물이 아니었다. 많은 독립운동가들에게 이념은 조선 사람들의 아름다운 삶을 위한 수단이었을 뿐이었는데, 그에게도 이념을 위한 이념 투쟁, 권력을 위한 이념 투쟁은 거부할 수밖에 없는 길이 있을 것이다.

일찍이 부처님이 맨발로 세상을 걸어 중생을 향해 걸어 들어가셨을 때 부처님은 단 한 번도 아름다운 삶을 가로막는 어떤 주의를 허용하신 바가 없다. 성숙, 그는 그 부처의 길을 좇아 놓지 못했던 이가 아니었을까. 이념이 굴레가 되는 세상이 아니라, 이념이 그 굴레를 벗기는 수단이 되는 세상을 위해서 살았던 고집스런 승려를 발견하면서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는 자를 불자(佛子)라고 부르는 것인지 묻고싶다.

금강대학교 불교문화연구소 인문학국선역 교수



불화 수월 관세음 보살圖

중생의 고를 다 해결하신후에 열반에 들겠노라 원을 세우신 관세음보살은 언제 어디에나 여러 모습으로 중생들 속에 나투시고 계십니다.

불자들은 고통이 있을때 항상 관세음보살님을 염송하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불자 가운데 많은 분들이 관음보살 그림을 가정에 두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불상이나 그림상 속에 불보살님의 마음이 있는줄 잘 못 알고 사찰이 아닌 곳에 있는 불상이나 그림상에 기도, 염불, 절 또는 예물을 올려 잘못되는 불자가 있거나 알을까 하는 노파심에 일부 스님들이 가정에 상을 두고 모시지 못하게 하는 것일 뿐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오직 마음에 관한 것이지 물질이나 상은 허망하여 공하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불보살님의 마음이 물질로 된 돌, 나무, 철 이나 그림으로 된 상속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이가 있다면 그것은 불보살님께 크나큰 불경이되며 염불을 하더라도 공염불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불보살님의 마음은 살아 숨쉬며 믿고 생각할 줄 아는 중생의 마음안에 같이 있습니다. 우리들 마음이 곧 부처임을 배워 알면서도 우리들 중생이 어리석어 믿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불상이나 그림상을 보며 마음속에 불보살님의 마음이 같이 한다는 것을 굳게 믿고 마음속에 불보살님께 기도, 염불, 절을 하면 그 즉시 전달이 됩니다.

불자라면 관세음보살 그림상 1점 정도는 눈이 자주 가는 곳(좋은 자리가 아님)에 두고 볼 때마다 염송을 한다던지 기도 등을 하고 모든일이 잘되면 감사한 마음으로, 잘되지 않을 때는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한 것이라 믿고 관하는 것을 생활화 한다면 이것이 곧 생활선이 되어 자연 고는 사라지고 망념이 끊어져 성불에 다가설수 있을 것 입니다. 그동안 본인은 많은 사람의 행화를 조성하며 공부 또한 게을리 하지 않았으나 아직도 부족함이 많은 불자의 한사람이지만 불자 가정에 불화 1점 없는 것이 항상 안타깝게 생각되어 본인의 재현 작품중 고려불화 가운데 설화를 바탕으로 그려진 수월관음도의 작품성이 뛰어나 이를 축소 하여 벽에 걸거나 탁자에 둘수 있도록 고급으로 제작 권하고저 합니다.

불자님들의 가정마다 관세음보살님의 가피가 충만하시고 하루 빨리 성불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불모 민한식 함장

불모 민한식 대표작 ▼

조계사 대웅전 신중탱화	33 × 4.84m
조계사 덕왕정 극락탱화	8.8 × 2.7 m
조계사 대웅전 영단탱화	13 × 2.1 m
조계사 2만불 조성 (석가미마역사불 권공정장보살)	17 × 15 × 24Cm

작품규격 : 2.8cm × 43.5cm

재질 : 원넛원목 / 이크릴(표면)
(벽걸이 탁상용 겸용)

가액 : 12만원 (택배비 포함)

일심공예 경기도 의왕시 내손동 677-10 301호

031)421-1040 | 010-2248-7395 | 010-7158-0004

계좌번호 : 농협 356-0413-3251-63 (예금주 : 민한식)

절날선물로 최고!!!

▼ 아래 작품도 판매 가능합니다.



◁ 지정보살



◁ 달마선사